

# 제2차

제20대 대통령선거(2022.03.09)에 관한

## 유권자의식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 CONTENTS

## 제 1 장. 조사 개요

I. 조사 설계 .....	1
II. 주요 조사 항목 .....	2
III. 가중값 배율 .....	3
IV. 표본의 특성 .....	4

##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I. 조사 결과 총괄 요약 .....	7
1. 20대 대통령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의향 .....	7
2. 투표 예정일 / 사전 투표 의향 이유 .....	8
3. 투표 후보 결정 여부 / 후보선택 시 고려사항 .....	9
4. 정책·공약 인지도 / 정책대결 선거 평가 .....	10
5. 지지후보 결정 정보 .....	11
6. 투표 효능감 .....	12
7. 코로나19와 선거참여 .....	13
8. 선거공명도 평가 .....	14
9. 선거관련 제도 인지도 .....	15
10. 선거관리위원회 평가 .....	15
II. 조사 결과 세부 요약 .....	16
1. 20대 대통령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의향 .....	16
2. 투표 의향 없는 이유 .....	17
3. 투표 예정일 / 사전 투표 의향 이유 .....	18
4. 후보 결정 여부 / 지지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	19



# CONTENTS

5. 정책 · 공약 인지도 .....	20
6. 후보자간 정책대결 선거로서의 평가 .....	21
7.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 .....	22
8. 투표효능감 .....	23
9. 코로나 19와 선거참여 .....	24
10.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명성 평가 / 공명성 부정평가 이유 .....	25
11. 후보자 선거법 준수도 / 선거법 준수도 투표 반영 여부 .....	27
12. 불법 선거운동 경험 여부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의향 / 미신고 이유 .....	28
13. 선거 관련 제도 인지도 .....	30
14.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및 활동 평가 .....	31
15.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 평가 / 중점 홍보 필요사항 .....	32
16.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 .....	33



## PART 1

### 조사 개요





# 제 1 장 | 조사 개요

## I 조사 설계

**조사 대상** ▶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조사 규모** ▶ 총 1,522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5\%P$

**조사 방법** ▶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표본 추출** ▶ 성·연령·지역 인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표본 프레임** ▶ 무선전화 가상번호(90.0%) + 유선전화 RDD(10.0%)

**응답률** ▶ 21.6%(무선전화 21.5%, 유선전화 22.3%)

**조사 기간** ▶ 2022년 2월 27일(일) ~ 28일(월) (총 2일간)

**조사 의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기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II 주요 조사 항목

###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식

- ▶ 선거 관심도
- ▶ 투표 의향
- ▶ 투표 미참여 이유
- ▶ 투표 예정일
- ▶ 사전투표 이유
- ▶ 후보자 결정 여부
- ▶ 지지 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 정책·공약 인지도

- ▶ 후보자 정책 및 공약 인지도
- ▶ 후보자간 정책대결 선거로서의 평가 / 정책대결 선거가 되지 않는 이유
- ▶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

### 정치 및 선거참여 인식

- ▶ 투표 효능감
  - 선거를 통한 국가 미래 결정
  - 선거를 통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결정
  - 선거에서 내 한표의 중요성
- ▶ 코로나19와 선거 참여

### 선거 분위기 및 불법선거운동

- ▶ 제 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성 평가 / 공명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 ▶ 후보자들의 선거법 준수 정도
- ▶ 투표시 후보자들의 선거법 준수 여부 반영 정도
- ▶ 불법 선거운동 경험 여부
-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 의향 /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

### 선거 관련 제도 인식

- ▶ 코로나19 확진 · 격리 유권자 투표시간 연장 인지 여부

### 선관위 활동 평가

- ▶ 선관위 활동 평가 / 선관위 공명선거 홍보활동 평가 / 선관위 중점 홍보사항
- ▶ 선관위 역점 과제

### Ⅲ 가중값 배율

구분		조사완료		가중값 적용기준		가중값 배율[B/A]
		사례수[A]	%	사례수[B]	%	
전체		1,522	100.0	1,522	100.0	1.00
성별	남자	761	50.0	754	49.6	0.99
	여자	761	50.0	768	50.4	1.01
연령별	18~29세	263	17.3	263	17.3	1.00
	30대	218	14.3	231	15.2	1.06
	40대	283	18.6	281	18.5	0.99
	50대	300	19.7	297	19.5	0.99
	60대	248	16.3	248	16.3	1.00
	70세 이상	210	13.8	202	13.3	0.96
지역별	서울	284	18.7	286	18.8	1.01
	인천/경기	479	31.5	480	31.6	1.00
	대전/세종/충청	155	10.2	162	10.6	1.04
	광주/전라	151	9.9	149	9.8	0.99
	대구/경북	150	9.9	149	9.8	0.99
	부산/울산/경남	236	15.5	230	15.1	0.98
	강원/제주	67	4.4	65	4.3	0.98

주)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비를 따름



## IV 표본의 특성

구분		계	
		사례수	%
전체		1,522	100.0
성별	남자	754	49.6
	여자	768	50.4
연령별	18~29세	263	17.3
	30대	231	15.2
	40대	281	18.5
	50대	297	19.5
	60대	248	16.3
	70세 이상	202	13.3
권역별	서울	286	18.8
	인천/경기	480	31.6
	대전/세종/충청	162	10.6
	광주/전라	149	9.8
	대구/경북	149	9.8
	부산/울산/경남	230	15.1
	강원/제주	65	4.3
직업별	화이트칼라	514	33.8
	블루칼라	149	9.8
	자영업	254	16.7
	농임어업	28	1.8
	가정주부	303	19.9
	학생	111	7.3
	무직/기타/무응답	163	10.7
학력별	중졸 이하	133	8.7
	고졸	411	27.0
	대재 이상	966	63.5
	모름/무응답	12	0.8
소득별	200만원 이하	247	16.2
	201-400만원 이하	376	24.7
	401-700만원 이하	415	27.3
	701만원 이상	290	19.1
	모름/무응답	194	12.8

## PART 2

### 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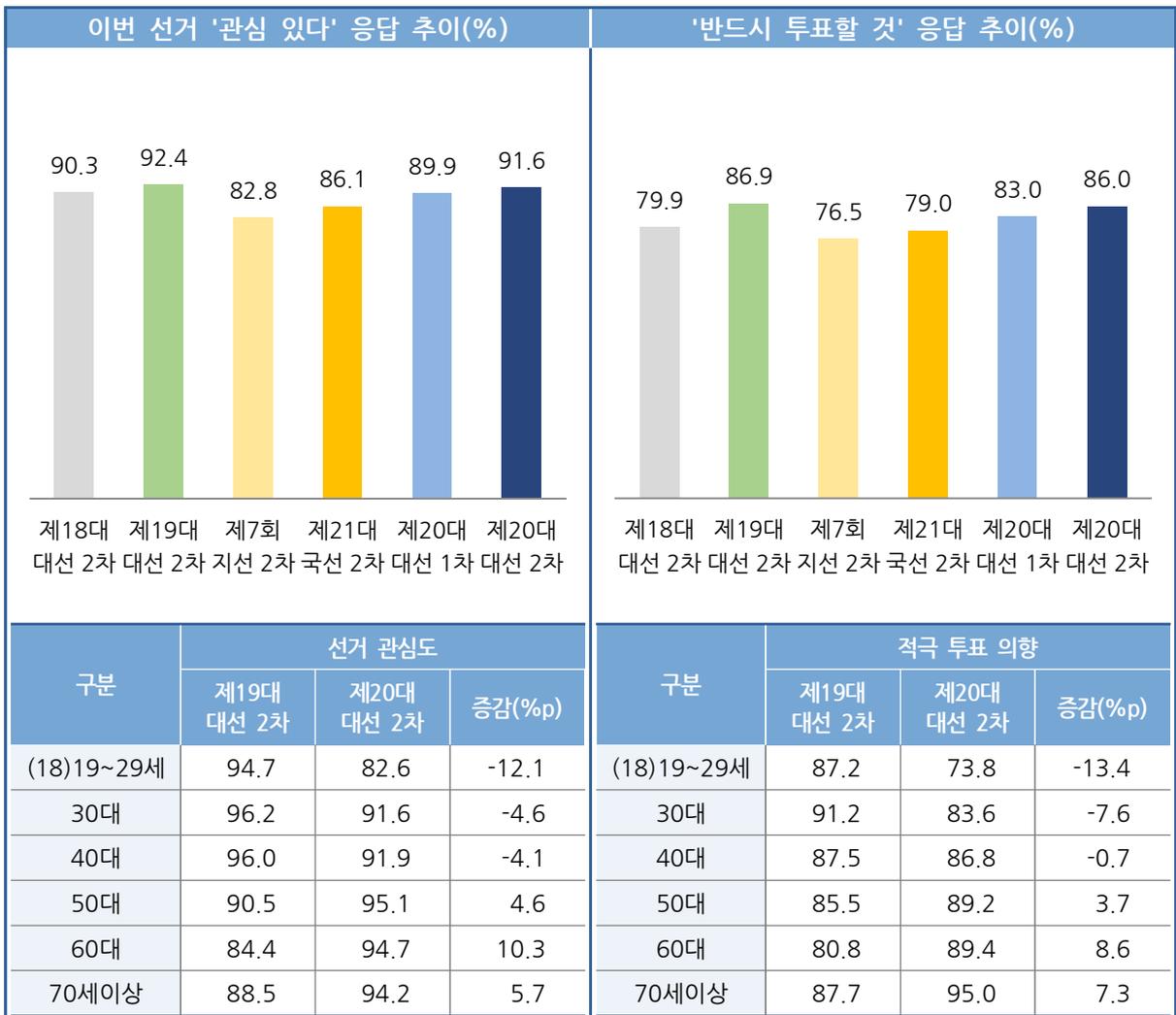
# 제 2 장 | 조사 결과 요약

## I

### 조사 결과 총괄 요약

#### 1. 20대 대통령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의향

- ▶ 20대 대통령 선거 '관심 있다' 91.6%, '반드시 투표할 것' 86.0%
- 19대 대선과 비교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선거 관심도 및 적극 투표 의향이 상승하였으나, 40대 이하는 선거 관심도 및 적극 투표 의향 모두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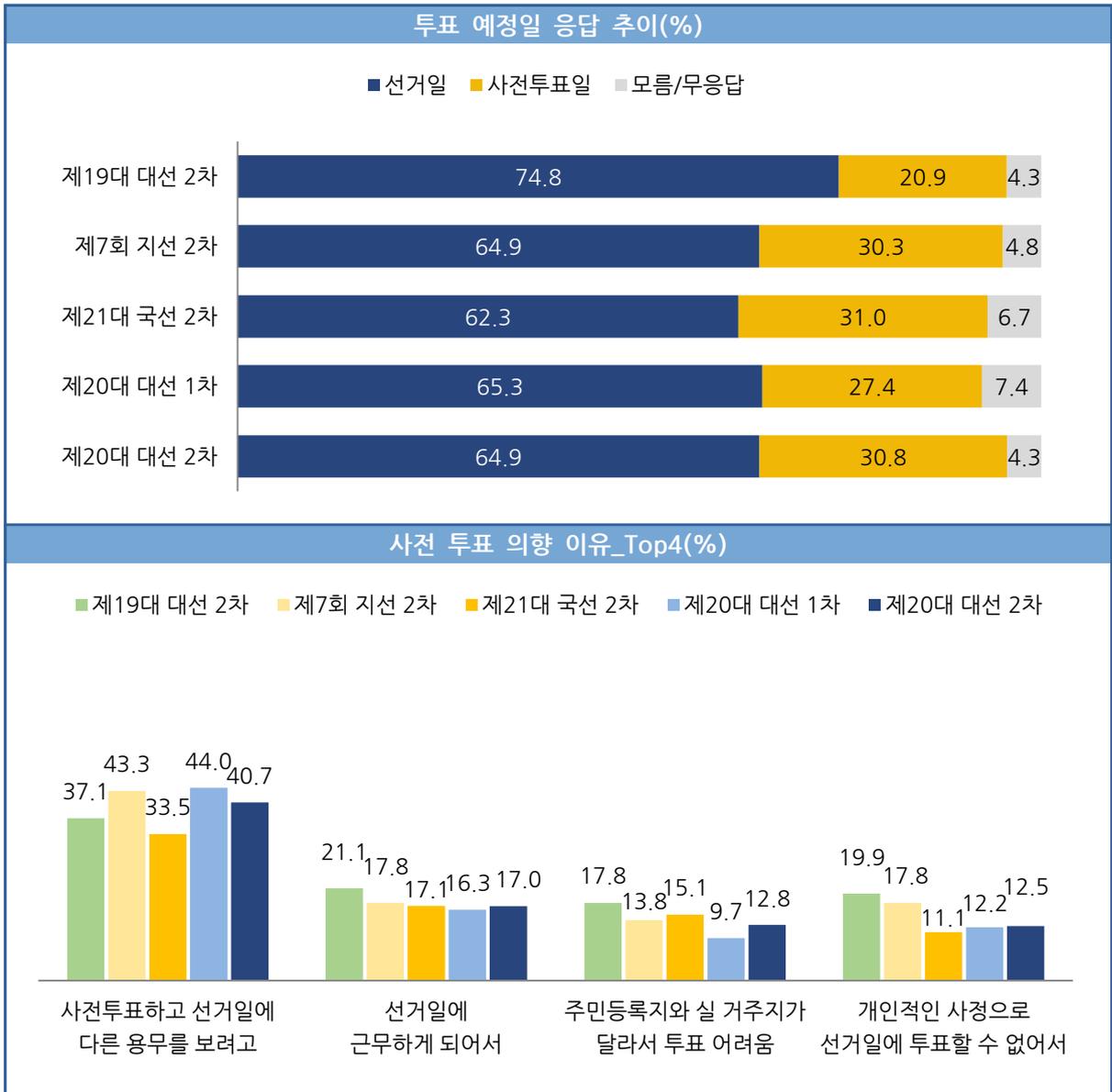


## 2. 투표 예정일 / 사전 투표 의향 이유

▶ 선거일 투표 64.9%, 사전 투표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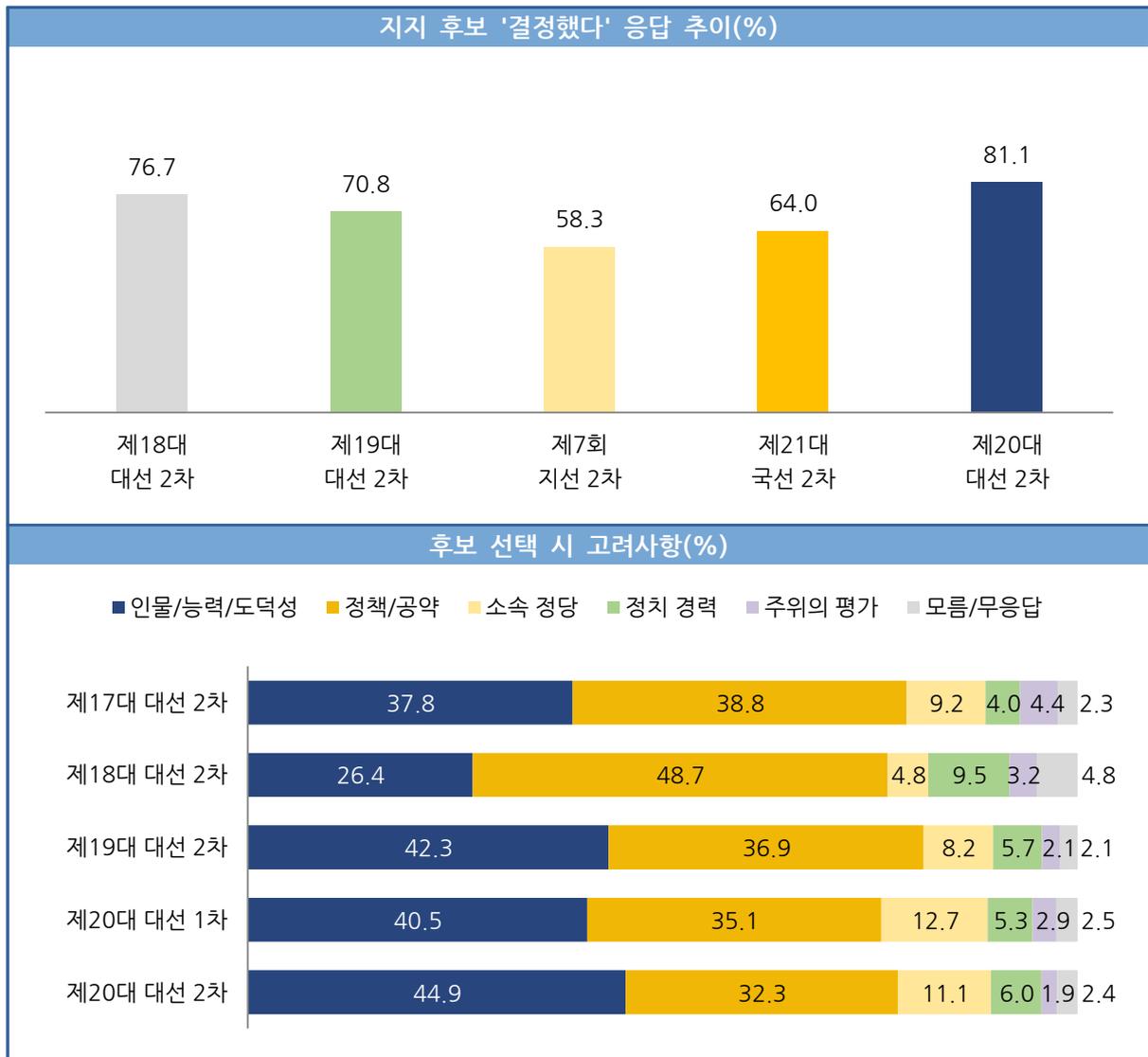
- 사전 투표 의향 19대 대선 대비 9.9%p, 20대 대선 1차 대비 3.4%p 증가
- 사전 투표 의향은 50대 이하(35% 내외)에서 높음

▶ 사전 투표 이유로는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40.7%)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3. 투표 후보 결정 여부 / 후보선택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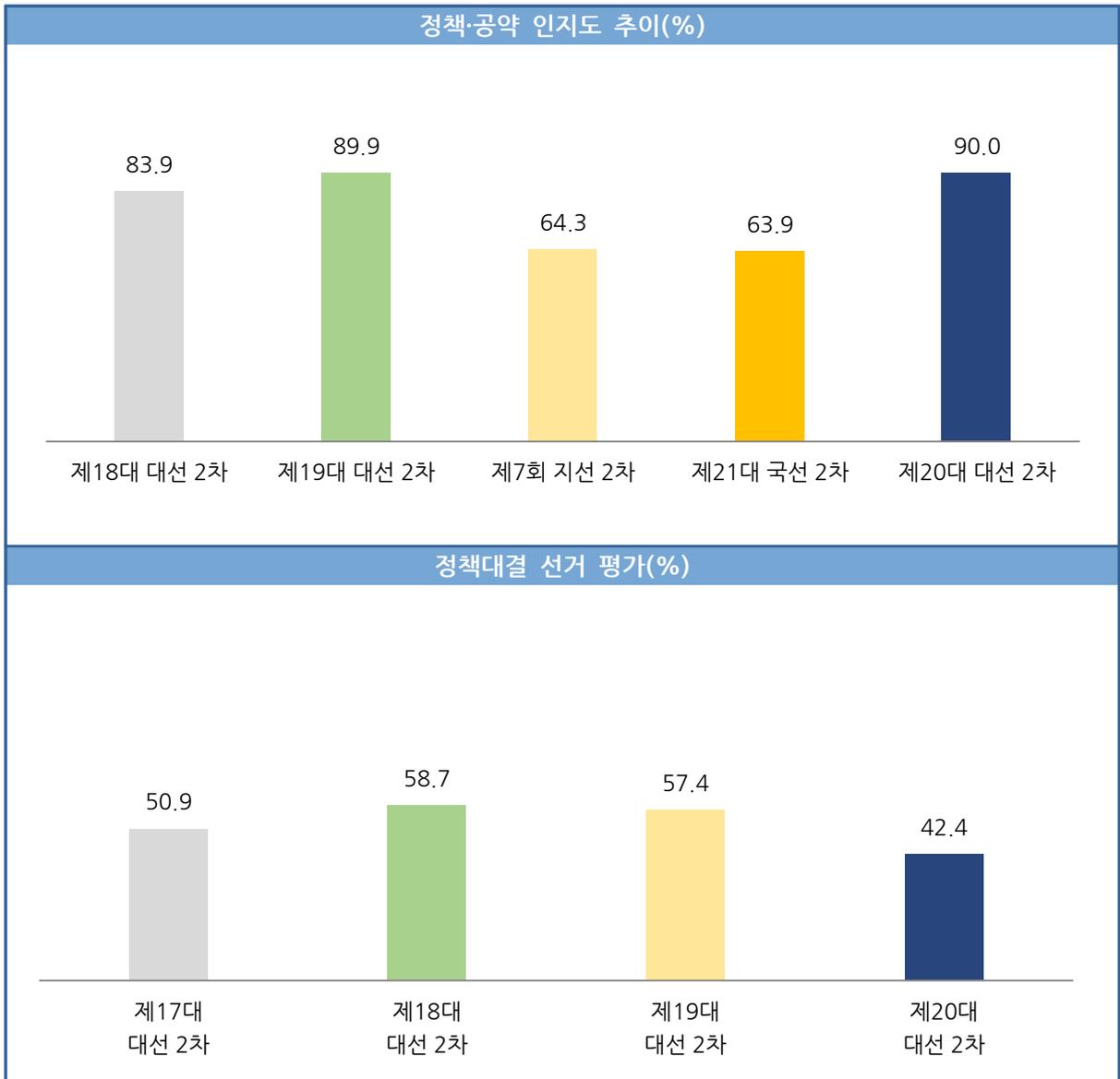
- ▶ 선거일 10일 전, 응답자의 80% 이상 투표 후보 결정
- ▶ 투표 후보 선택 시 '인물·능력·도덕성'(44.9%)과 '정책·공약'(32.3%)이 가장 중요
  - '인물·능력·도덕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19대 대선 대비 증가
  - 30대 이하는 '정책·공약', 40대 이상은 '인물·능력·도덕성' 고려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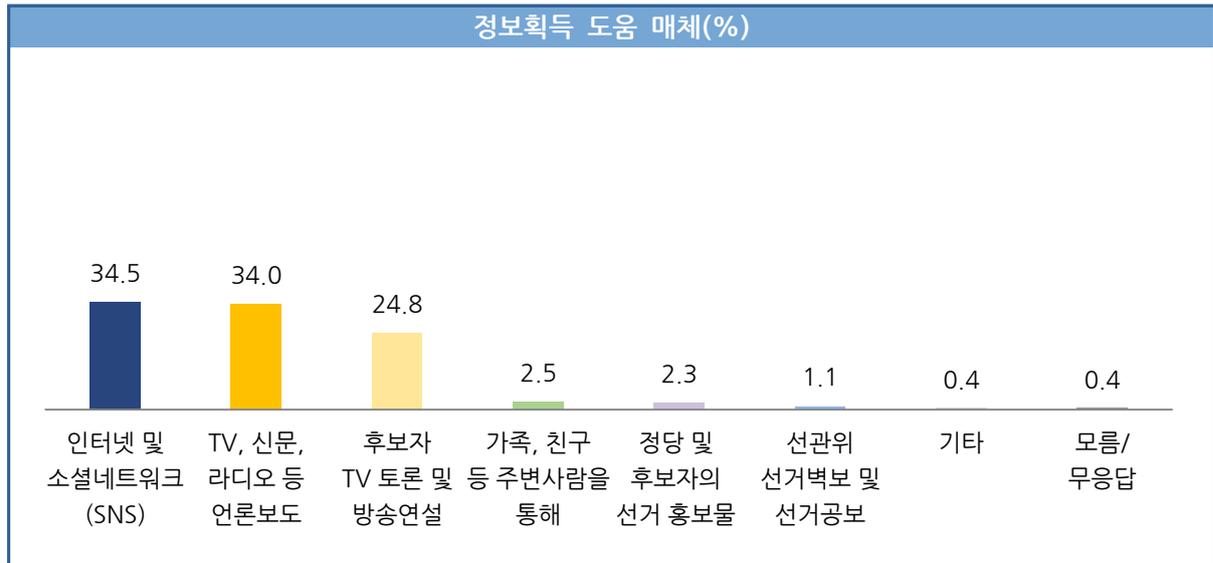
#### 4. 정책·공약 인지도 / 정책대결 선거 평가

- ▶ 후보자 정책·공약 인지도 90.0%로, 유권자 10명 중 9명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인지
  - 후보자 정책·공약 인지도는 19대 대선(89.9%)과 비슷한 수준
- ▶ 이번 대선, ‘후보자간 정책대결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42.4%
  - ‘정책대결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는 응답은 19대 대선 대비 15.0%p 큰 폭으로 하락



## 5. 지지후보 결정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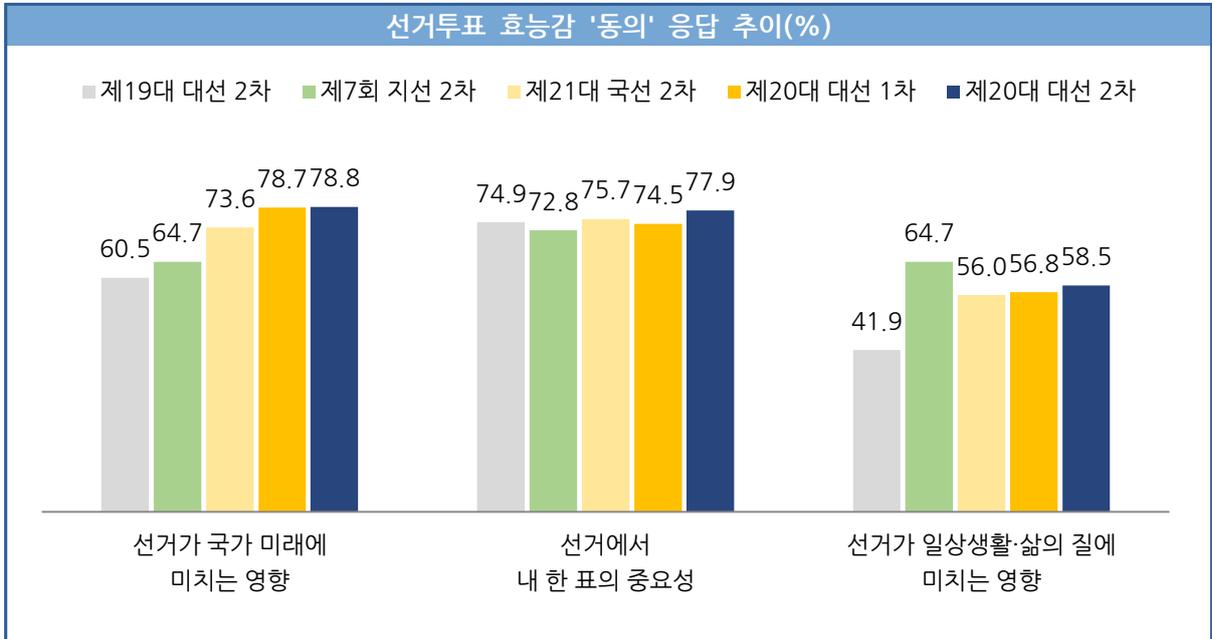
- ▶ 지지후보 선택에 필요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SNS)'(34.5%)와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보도'(34.0%), 후보자 TV토론 및 방송연설(24.8%) 등을 통해 획득
  - 30대 이하는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SNS)', 60대 이상은 'TV, 신문, 라디오'에서 주로 지지후보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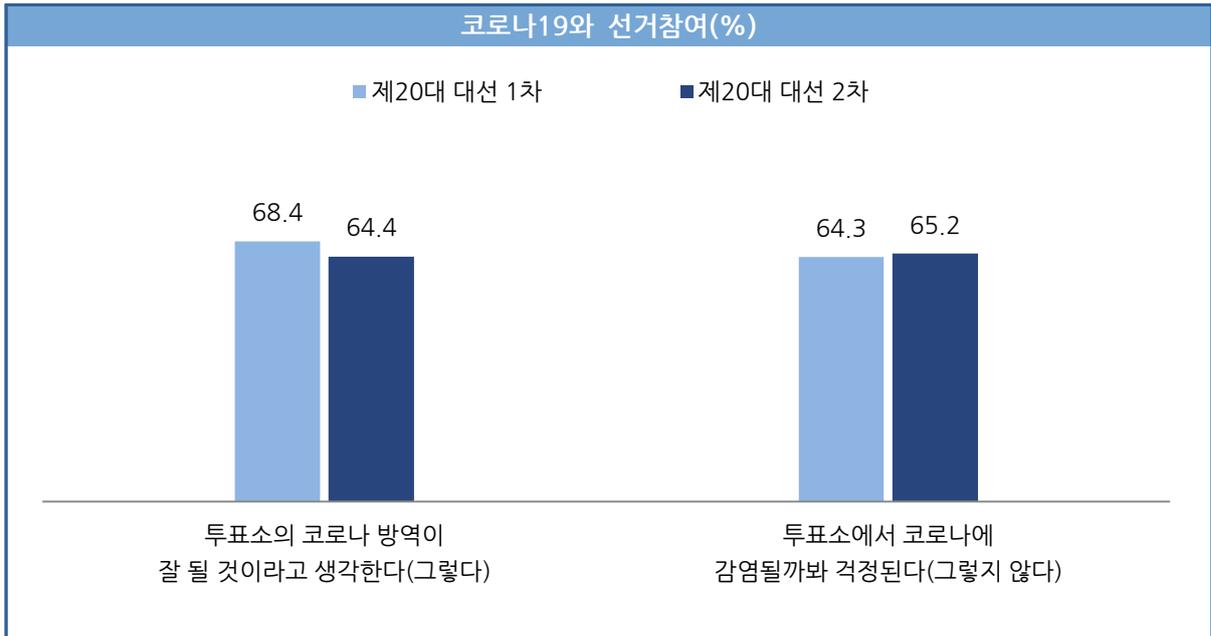
## 6. 투표 효능감

- ▶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78.8%),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77.9%),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58.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7. 코로나19와 선거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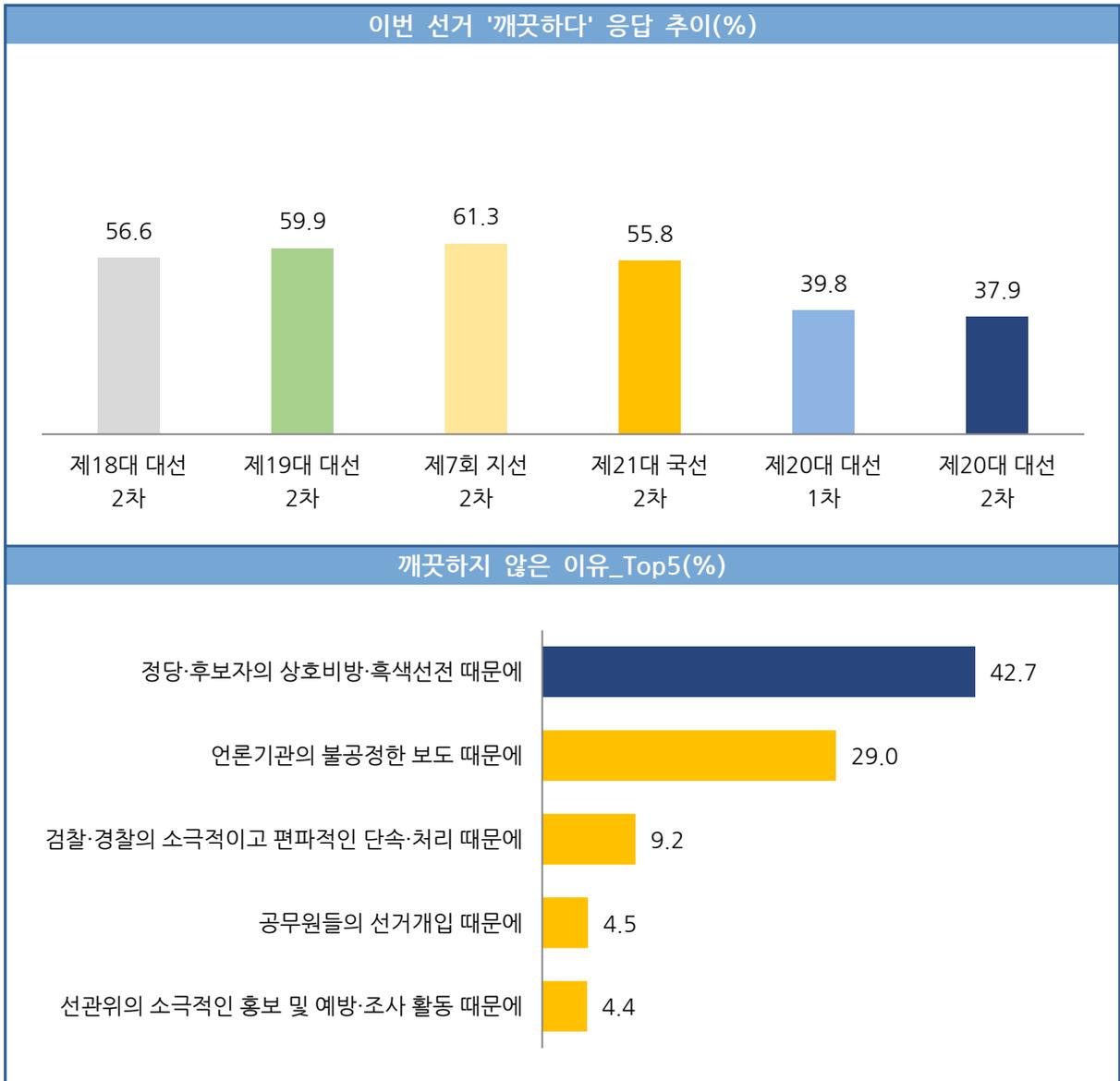
- ▶ 코로나19와 선거참여에 대한 생각은 '투표소의 코로나 방역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64.4%, '투표소에서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걱정된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65.2%로 나타나 60% 이상의 국민들이 투표소의 코로나19 방역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와 선거참여에 대한 생각은 1차 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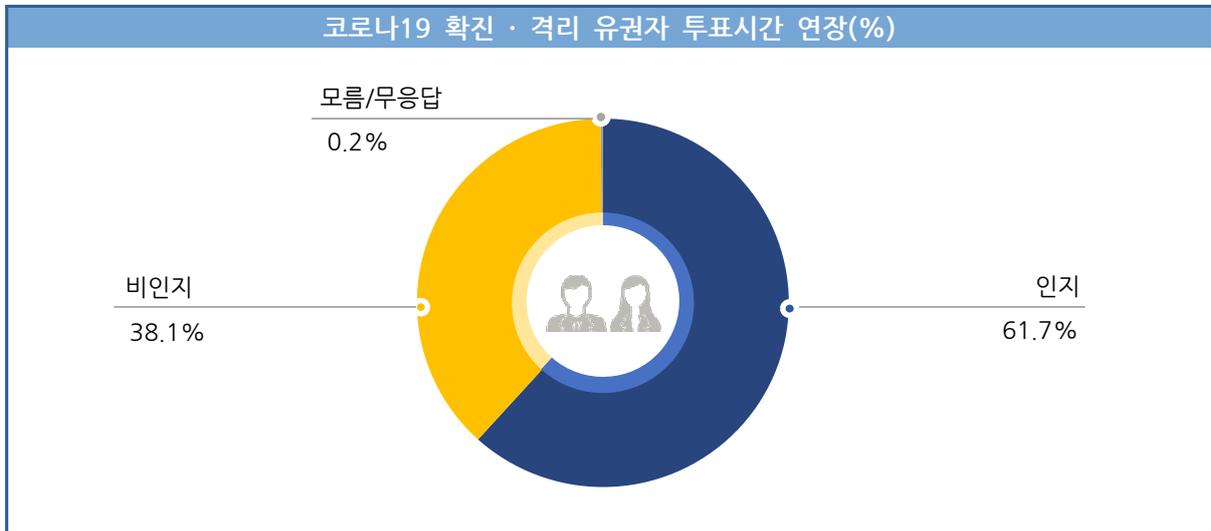
### 8. 선거공명도 평가

- ▶ 20대 대통령 선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응답은 37.9%, '깨끗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54.5%  
- 7회 지선 이후 감소하다가 20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30%대의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1차 조사 대비 1.9%p 하락함
- ▶ 공명성 해치는 요소는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42.7%), '불공정 보도'(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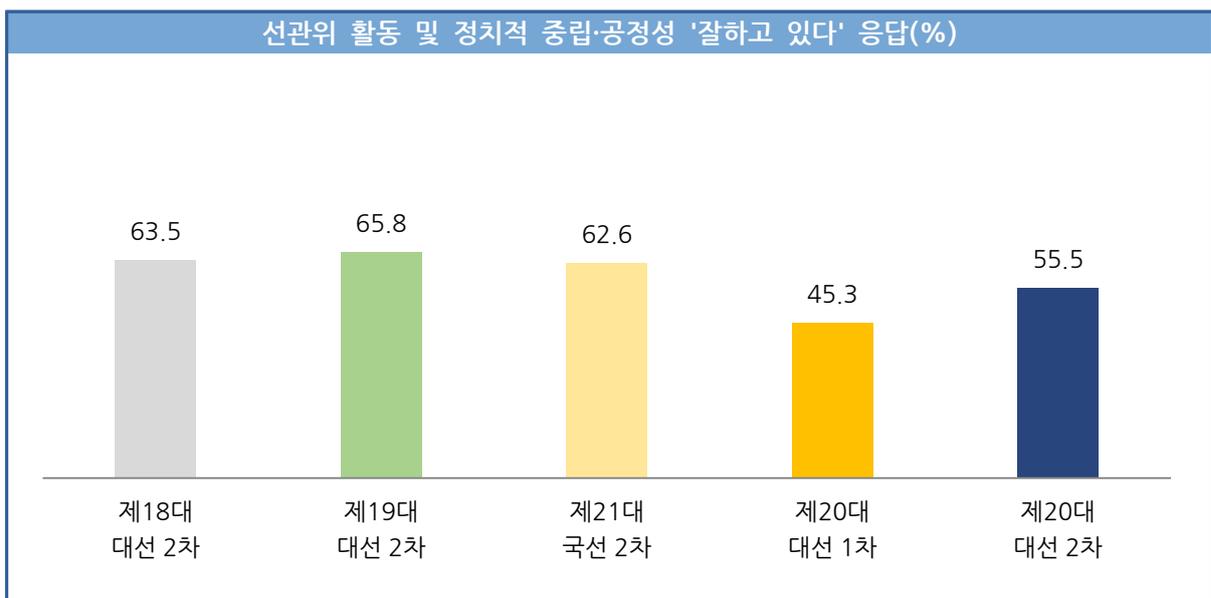
## 9. 선거관련 제도 인지도

-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의 투표시간 연장(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에 대해 '알고 있다' 61.7%로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인지



## 10. 선거관리위원회 평가

- ▶ 선관위 '활동·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긍정평가는 55.5%로 19대 대선 대비 감소 - 1차 조사 대비 긍정평가가 10.2%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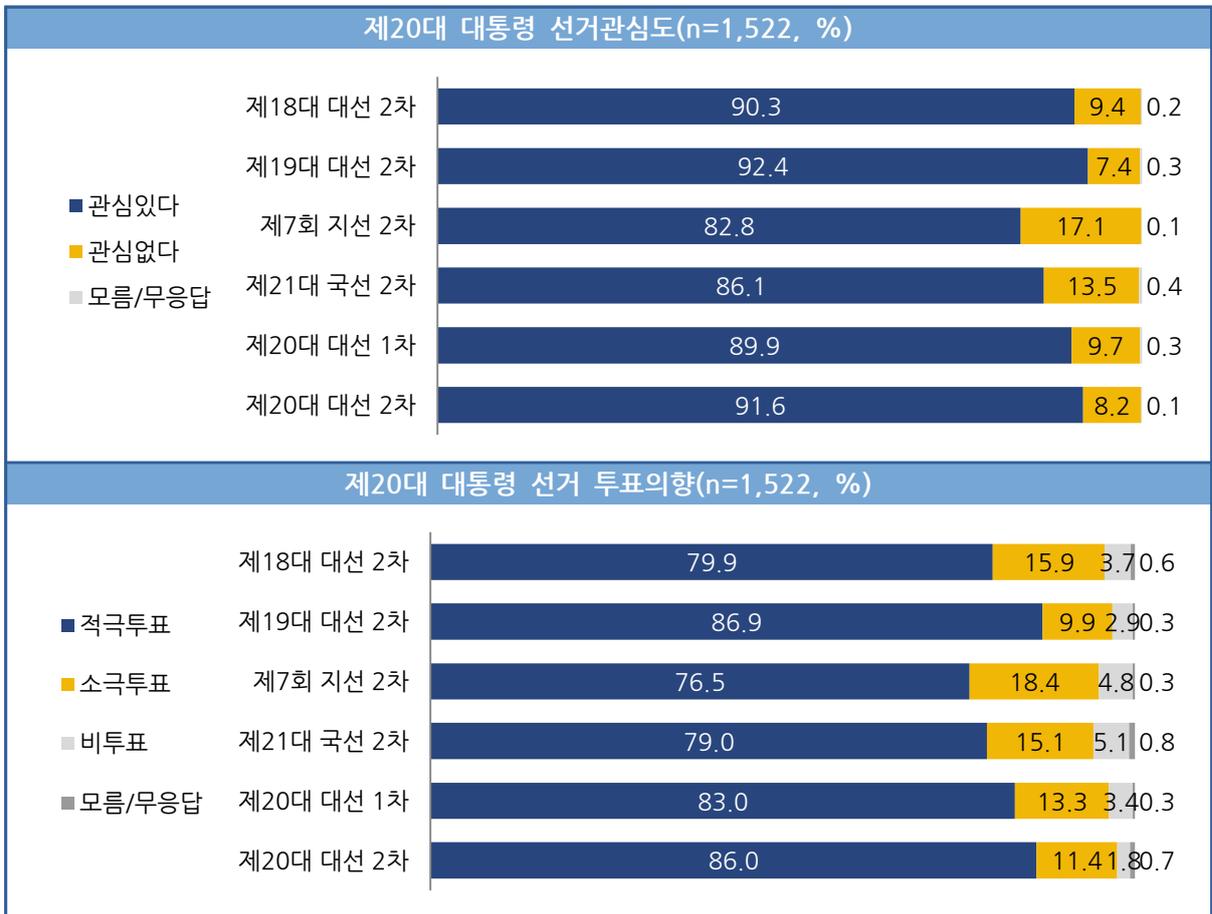




## II 조사 결과 세부 요약

### 1. 20대 대통령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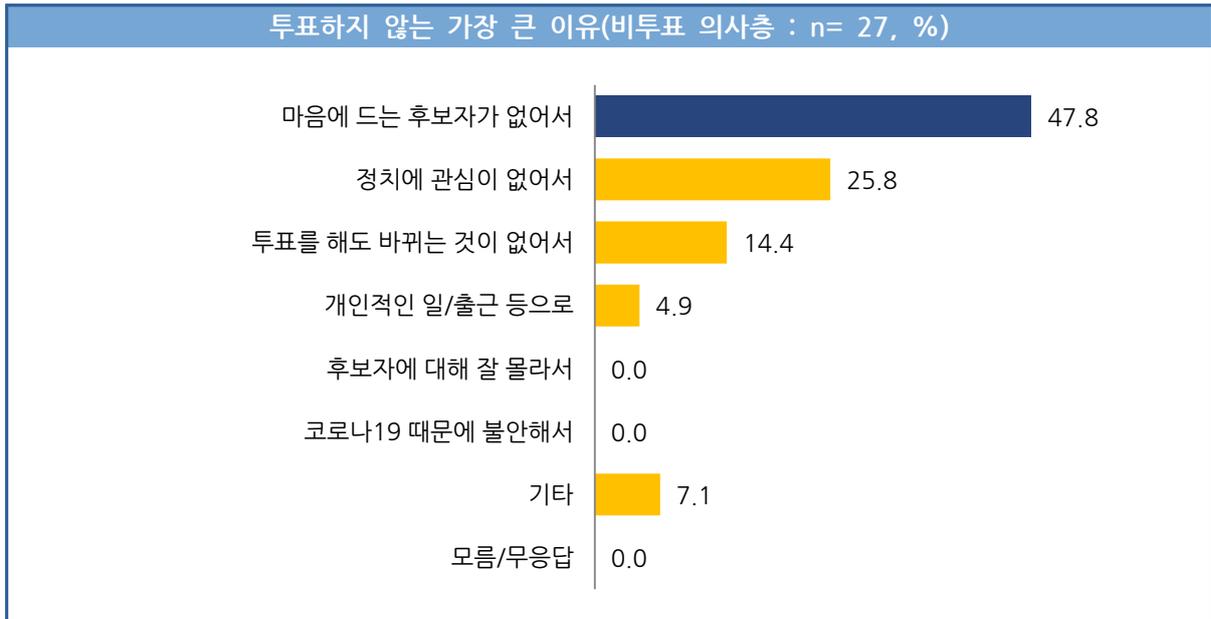
- ▶ 20대 대통령 선거 ‘관심 있다’ 91.6%, ‘반드시 투표할 것’ 86.0%
  - 19대 대선과 비교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선거 관심도 및 적극 투표 의향이 상승하였으나, 18~29세는 선거 관심도 및 적극 투표 의향 모두 낮아짐
  -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도 질문 결과, ‘매우 관심 있다’ 65.3%, ‘약간 관심 있다’ 26.4% 등 유권자의 91.6%가 관심을 표명,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은 86.0%로 조사됨. 관심도와 투표 의향 모두 1차 조사와 비슷한 수준임
  - 18~29세 이하 연령층의 관심도와 투표의향이 직전 국선/지선, 1차 조사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타 세대 대비 관심도 및 투표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 구분	선거 관심도						적극 투표 의향					
	제18대 대선 2차	제19대 대선 2차	제7회 지선 2차	제21대 국선 2차	제20대 대선 1차	제20대 대선 2차	제18대 대선 2차	제19대 대선 2차	제7회 지선 2차	제21대 국선 2차	제20대 대선 1차	제20대 대선 2차
전체	90.3	92.4	82.8	86.1	89.9	91.6	79.9	86.9	76.5	79.0	83.0	86.0
(18)19~29세	85.1	94.7	72.5	74.1	77.0	82.6	74.5	87.2	63.8	60.4	66.4	73.8
30대	91.5	96.2	77.0	82.2	90.2	91.6	71.8	91.2	72.4	75.6	84.1	83.6
40대	89.0	96.0	87.3	90.9	90.2	91.9	78.3	87.5	80.8	84.4	81.7	86.8
50대	90.9	90.5	86.1	87.9	93.5	95.1	82.8	85.5	77.0	80.3	87.2	89.2
60대	94.7	84.4	85.5	91.6	94.6	94.7	91.5	80.8	83.1	86.6	89.8	89.4
70세이상		88.5	89.9	92.0	95.3	94.2		87.7	85.3	90.9	90.7	95.0

## 2. 투표 의향 없는 이유

- ▶ 투표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가 47.8%로 가장 높았으나, 1차 조사 대비 7.4%p 낮게 나타남
-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라는 응답은 18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라는 응답은 14.4%로 제19대 대선 이후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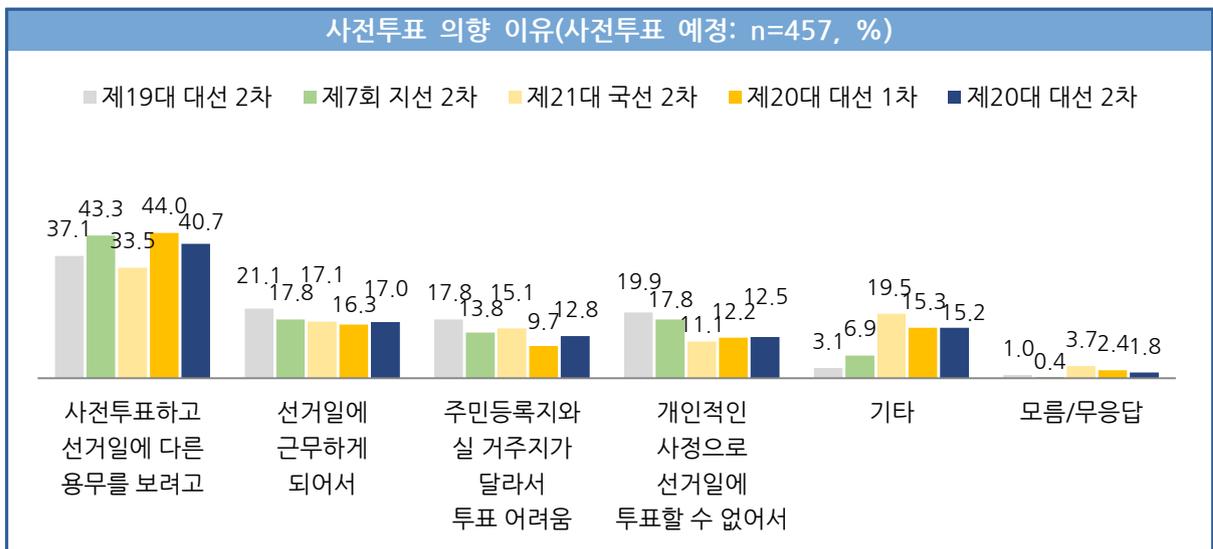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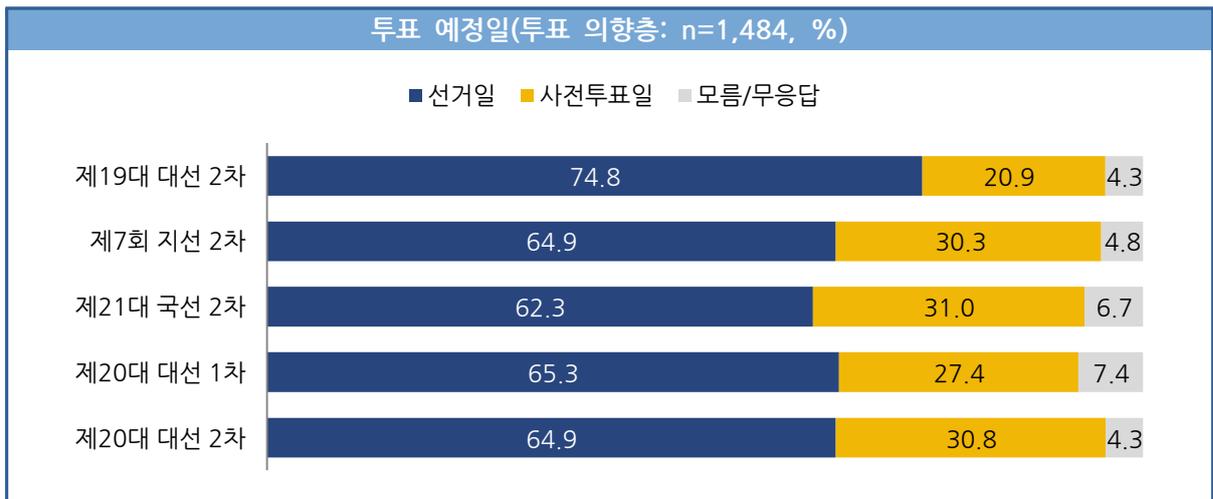
역대 선거 "비투표" 이유(%)	제18대 대선 2차	제19대 대선 2차	제7회 지선 2차	제21대 국선 2차	제20대 대선 1차	제20대 대선 2차
	(n=55)	(n=44)	(n=72)	(n=76)	(n=51)	(n=27)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어서	36.3	40.2	15.1	15.9	55.2	47.8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22.2	7.1	18.8	19.8	13.8	25.8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22.4	42.9	41.9	35.1	17.2	14.4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9.6	4.0	12.0	1.4	6.0	4.9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4.1	-	6.6	3.7	4.0	0.0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서	-	-	-	19.9	2.0	0.0
기타	1.5	5.7	5.6	4.2	1.9	7.1
귀찮아서	3.9	-	-	-	-	-
모름/무응답	-	-	-	-	0.0	0.0



### 3. 투표 예정일 / 사전 투표 의향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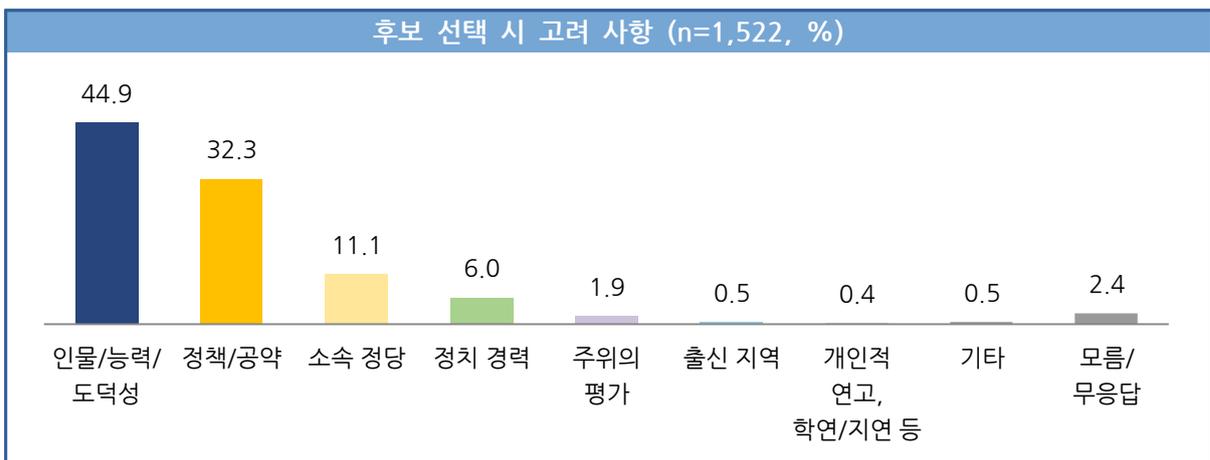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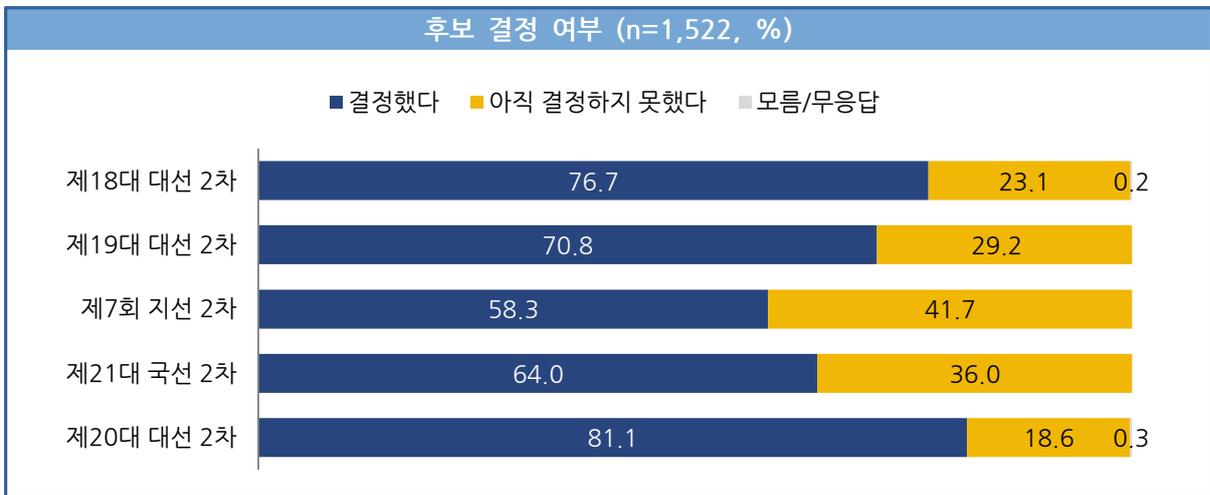
▶ 사전 투표 의향 30.8%로 19대 대선 대비 9.9%p, 1차 조사 대비 3.4%p 증가

- 사전 투표 의향은 50대 이하(35% 내외)에서 높음
- 사전 투표 이유로는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40.7%)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지난 19대 대선부터 가장 높게 나타남
- 투표의향자(N=1,484)의 64.9%는 '3월 9일' 선거일에 투표하겠다, 30.8%는 '3월 4일 또는 5일'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함
-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0대 이하(35% 내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34.8%)가 여자(26.9%)보다 사전투표일 투표의향이 높음
- 사전투표 참여의향은 19대 대선 사전투표 참여의향(20.9%)보다 9.9%p 높고, 지난 19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26.1%)보다 높게 나타남
- 사전 투표 이유로는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가 40.7%로 19대 대선(37.1%)에 이어 가장 많이 응답됨. 그 외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어서'(17.0%), '주민등록지와 실 거주지가 달라서'(12.8%),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어서'(12.5%)는 모두 지난 대선 당시(각 20% 내외)보다 응답 감소함



#### 4. 후보 결정 여부 / 지지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 ▶ 선거일 10일 전, 응답자의 80% 이상 투표 후보 결정
  - 투표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은 19대 대선 이후 증가 추세
- ▶ 지지 후보 선택 시 '인물·능력·도덕성'(44.9%)과 '정책·공약'(32.3%)이 가장 중요
  - 지난 대선 대비 '정책·공약'을 고려한다는 응답 하락
  - 30대 이하는 '정책·공약', 40대 이상은 '인물·능력·도덕성' 고려 많아
  - '정책·공약'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18~29세의 48.9%, 30대의 41.5%가 타 세대보다 높게 고려함.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정책·공약'보다 '인물·능력·도덕성' 요인에 대한 고려가 많아 세대별 후보 선택 영향 요인의 차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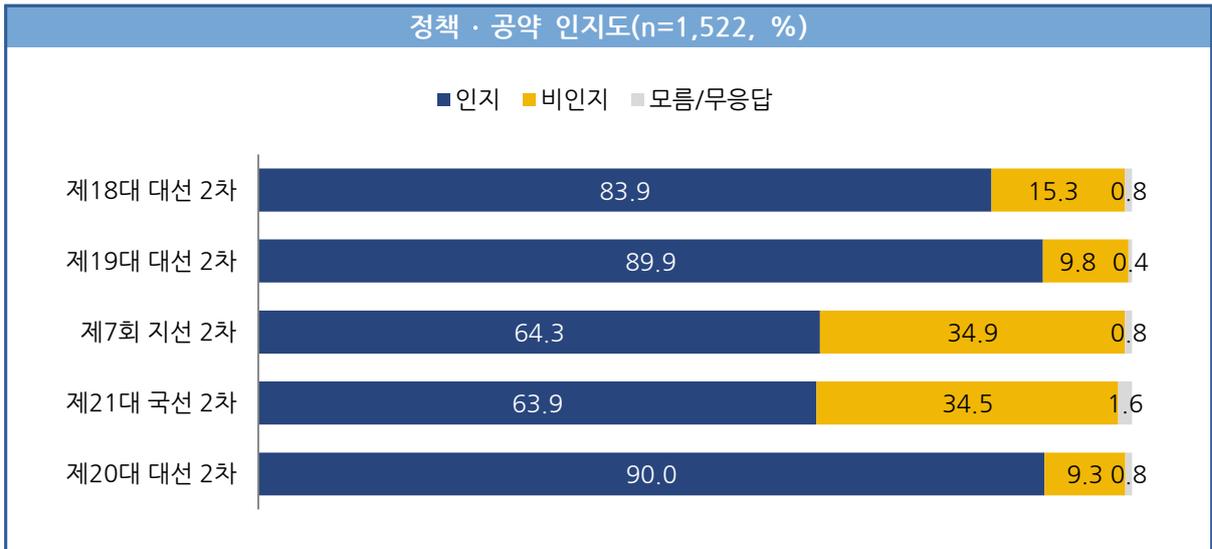


후보 선택 기준(%)	인물/능력/도덕성	정책/공약	소속 정당	정치 경력	주위의 평가	출신 지역	개인적 연고, 학연/지연 등	기타	모름/무응답
제17대 대선 2차	37.8	38.8	9.2	4.0	4.4	0.6	1.0	1.9	2.3
제18대 대선 2차	26.4	48.7	4.8	9.5	3.2	0.4	0.3	1.9	4.8
제19대 대선 2차	42.3	36.9	8.2	5.7	2.1	0.7	0.7	1.4	2.1
제20대 대선 1차	40.5	35.1	12.7	5.3	2.9	0.5	0.1	0.3	2.5
제20대 대선 2차	44.9	32.3	11.1	6.0	1.9	0.5	0.4	0.5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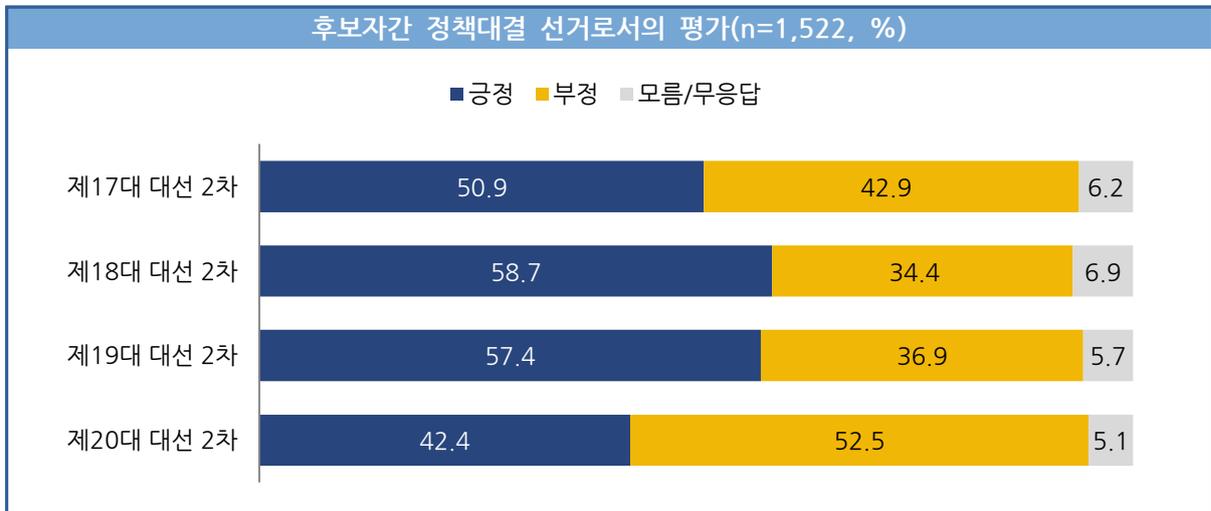
### 5. 정책 · 공약 인지도

- ▶ 후보자 정책·공약 인지도 90.0%로, 유권자 10명 중 9명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인지
  - 후보자 정책·공약 인지도는 18대 대선 대비 6.1%p 증가하였음
  - 18~29세의 정책·공약 인지도는 80.3%로, 타 세대(90% 내외)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6. 후보자간 정책대결 선거로서의 평가

- ▶ 이번 대선, ‘후보자간 정책대결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42.4%(매우 그렇다 10.3% + 그런 편이다 32.1%)
  - ‘정책대결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는 응답은 19대 대선 대비 15.0%p 하락, 18대 대선 이후 감소 추세
- ▶ 정책대결로 치러지지 않는 이유로는 ‘정책보다는 상호 비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57.9%로, 과반수가 넘는 유권자가 후보자간 ‘네거티브’를 가장 높게 응답함
  - ‘정책보다는 상호 비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라는 응답은 19대 대선 대비 6.1%p 증가한 반면, ‘표와 인기를 의식한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어서’ 라는 응답은 18대 대선 이후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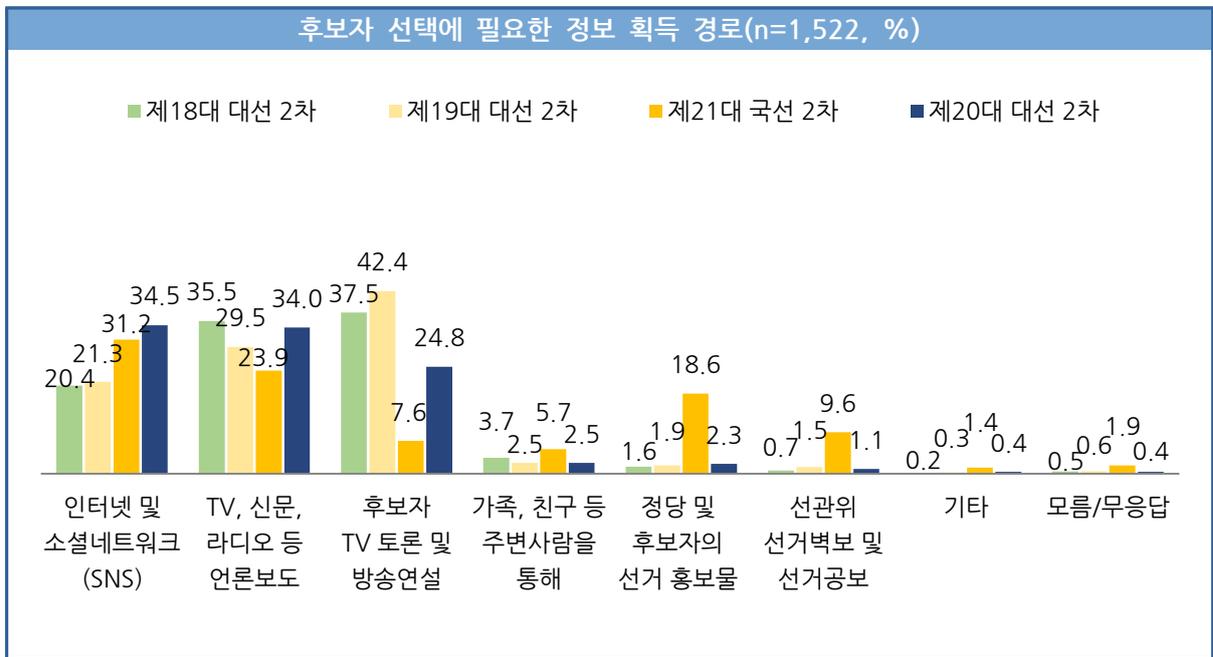


정책대결 선거가 되지 않는 이유 (부정평가자: n=799, %)	제17대 대선 2차	제18대 대선 2차	제19대 대선 2차	제20대 대선 2차
	(n=643)	(n=516)	(n=533)	(n=799)
정책보다는 상호비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56.8	27.5	51.8	57.9
표와 인기를 의식한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어서	-	34.3	26.7	22.7
정책을 논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16.5	23.3	8.2	9.1
흥미를 끌만한 정책이 없어서	12.9	6.9	6.8	3.7
대선 자체에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서	5.6	3.2	3.6	2.1
유권자들이 정책에 관심이 없어서	4.7	-	-	-
기타	1.3	2.0	0.5	1.6
모름/무응답	2.2	2.9	2.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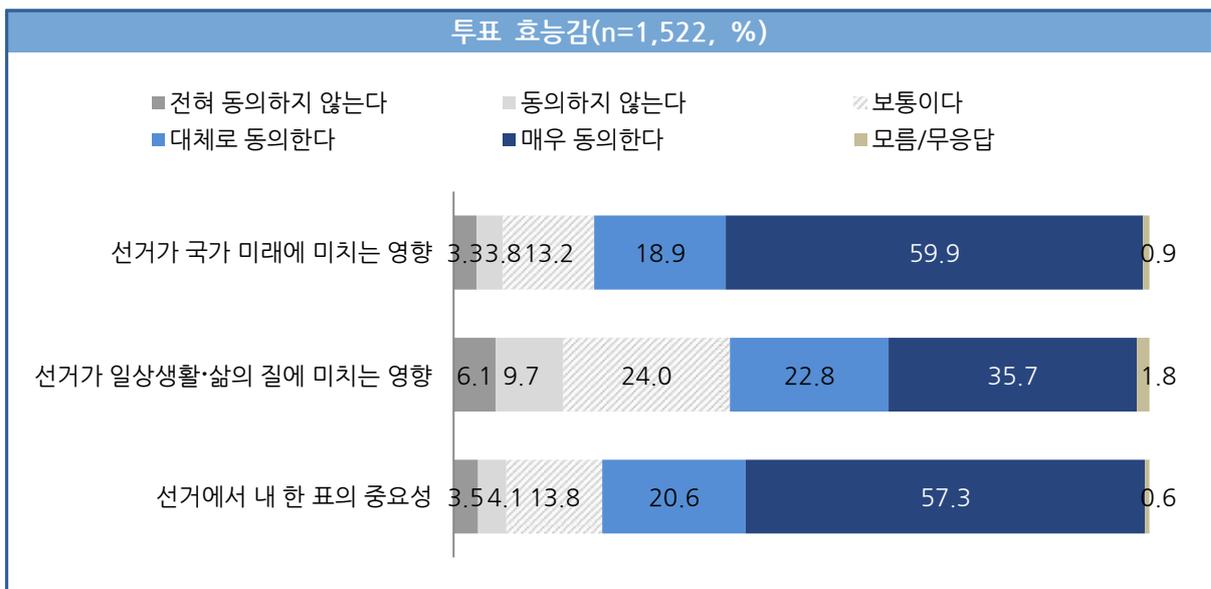
### 7.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

- ▶ 지지후보 선택에 필요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SNS)’(34.5%)와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보도’(34.0%), ‘후보자 TV토론 및 방송연설’(24.8%)을 통해 획득
  -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지지후보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18대 대선 이후 증가 추세
  - ‘후보자 TV 토론 및 방송연설’을 통해 지지후보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지난 19대 대선 대비 17.6%p 크게 감소함
- 30대 이하는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SNS)’, 60대 이상은 ‘TV, 신문, 라디오’에서 주로 지지후보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 8. 투표효능감

- ▶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78.8%),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77.9%),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58.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투표 효능감에 대한 모든 항목의 동의율이 이전 선거 대비 증가
  - 세 개 질문으로 알아본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 및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78.8%, 58.5%로 직전 19대 대선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며,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은 3.0%p 소폭 상승함
-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40대 82.9%, 50대 82.5%),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30대 65.8%, 40대 63.9%),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50대 79.8%, 60대 87.6%)로 30~60대의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18~29세의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타 세대 대비 낮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투표) 교육·홍보에 관심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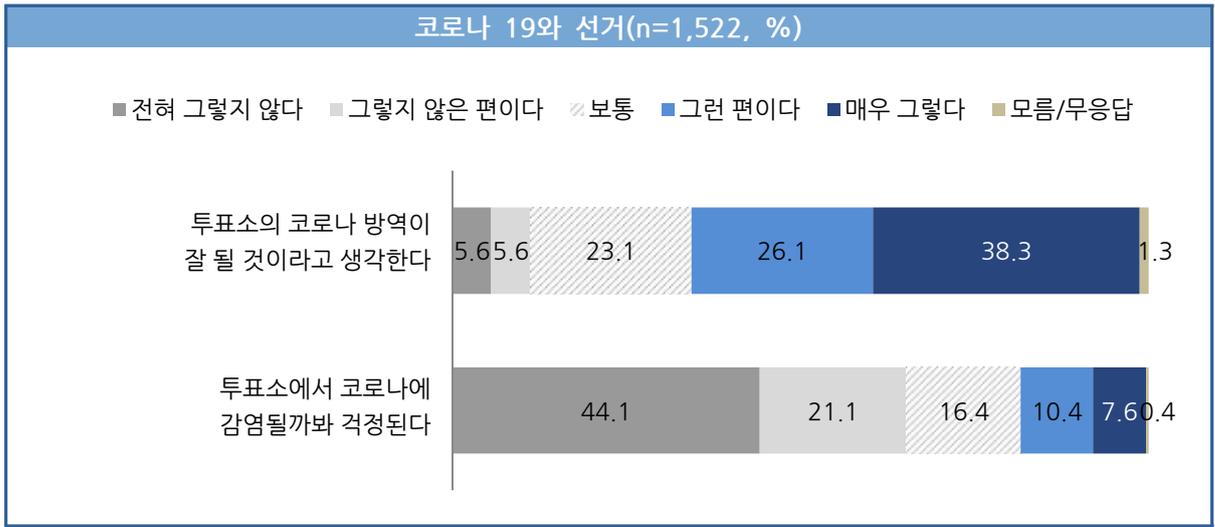
동의(%)	제19대 대선 2차	제7회 지선 2차	제21대 국선 2차	제20대 대선 1차	제20대 대선 2차	증감(%p) <sup>주1)</sup>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	60.5	64.7	73.6	78.7	78.8	18.3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41.9	50.6	56.0	56.8	58.5	16.6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	74.9	72.8	75.7	74.5	77.9	3.0

주1) 증감폭은 제20대 대선 2차 데이터와 제19대 대선 2차 데이터를 비교하였음



### 9. 코로나19와 선거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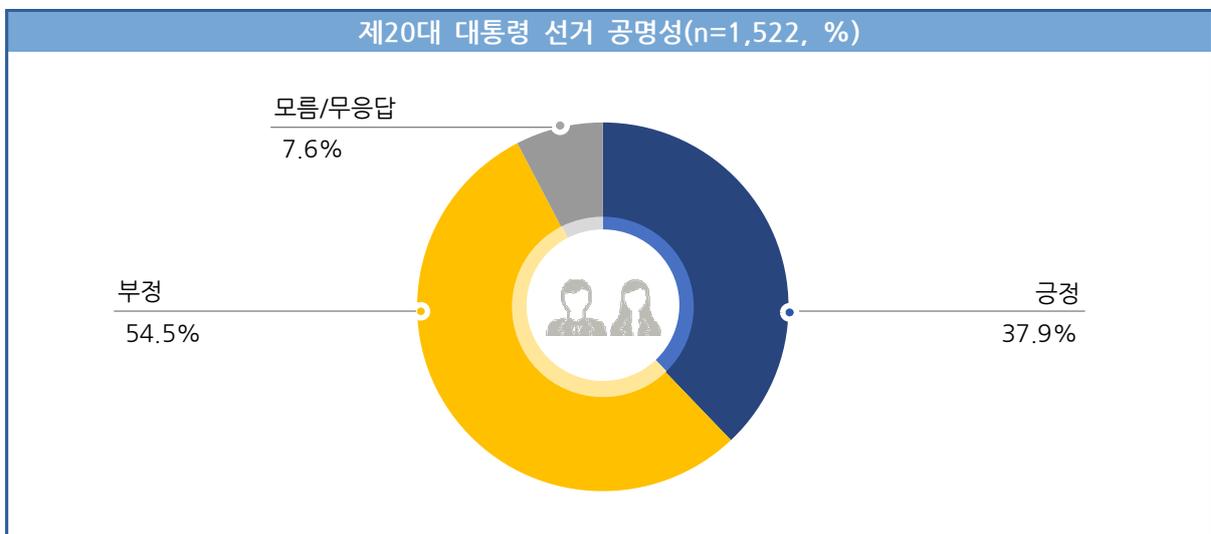
- ▶ 코로나19와 선거참여에 대한 생각은 ‘투표소의 코로나 방역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64.4%, ‘투표소에서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걱정된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65.2%로 나타나 60% 이상의 국민들이 투표소의 코로나19 방역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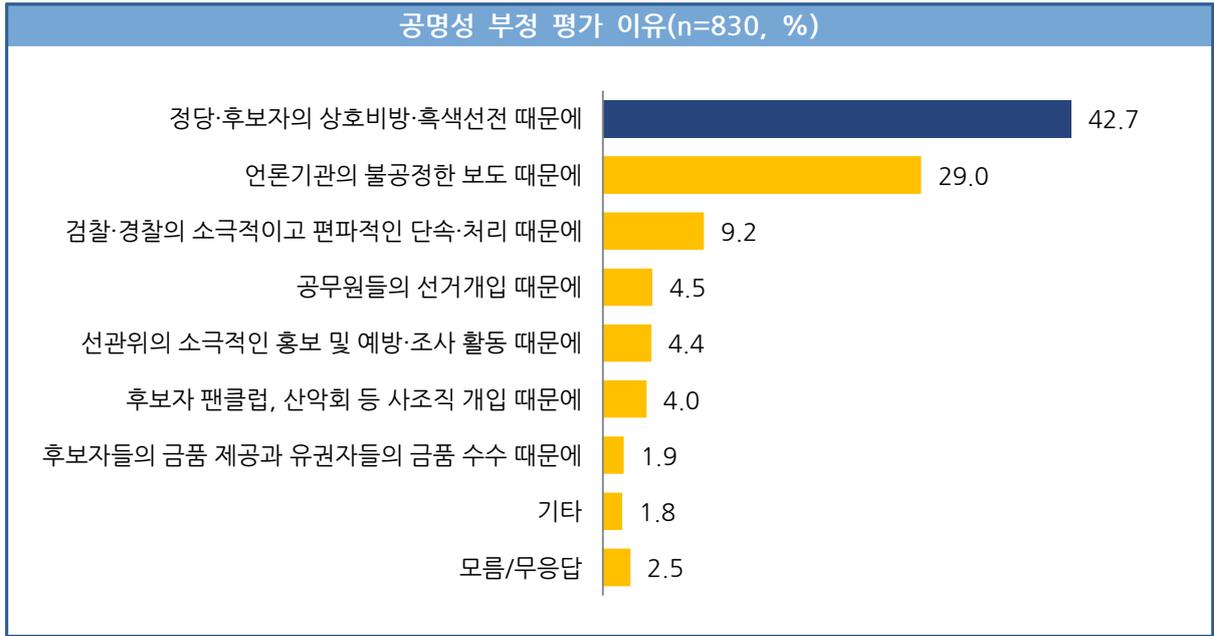


코로나 19와 선거(%)	제20대 대선 1차	제20대 대선 2차	증감(%)
투표소의 코로나방역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렇다)	68.4	64.4	-4.0
투표소에서 코로나에감염될까봐 걱정된다(그렇지 않다)	64.3	65.2	0.9

## 10.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명성 평가 / 공명성 부정평가 이유

- ▶ 20대 대통령 선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 37.9%, ‘깨끗하지 못하다’ 54.5%
  - 공명성 긍정 평가, 7회 지선 이후 꾸준히 감소
  - 이번 대통령 선거의 공명한 정도에 대해서는 ‘별로 깨끗하지 못한 편이다’ 39.9%, ‘전혀 깨끗하지 못하다’ 14.6% 등 과반수가 넘는 유권자(54.5%)가 공명성에 대해 부정평가해 긍정평가(37.9%)보다 16.6%p 더 많음. 공명성 긍정평가는 직전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19대 대선의 50%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며, 1차 조사와 비교하여서도 1.9%p 하락함
  - 공명성 긍정평가는 40대 이하에서 40% 내외로 비교적 높았던 반면, 50대 35.1%, 60대 33.9%, 70세 이상 30.9%로 고연령층에서는 모두 30%대로 낮은 평가를 받음
- ▶ 공명성 해치는 요소는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42.7%), ‘불공정 보도’(29.0%)
  - 이번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응답자(N=830)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42.7%)과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29.0%)에 응답 집중됨. 19대 대선과 비교해 ‘검·경찰의 소극적, 편파적 단속’ 응답은 5.6%p 증가함
  - ‘검찰·경찰의 소극적, 편파적 단속’은 지난 대선 대비 증가하였으나, 1차 조사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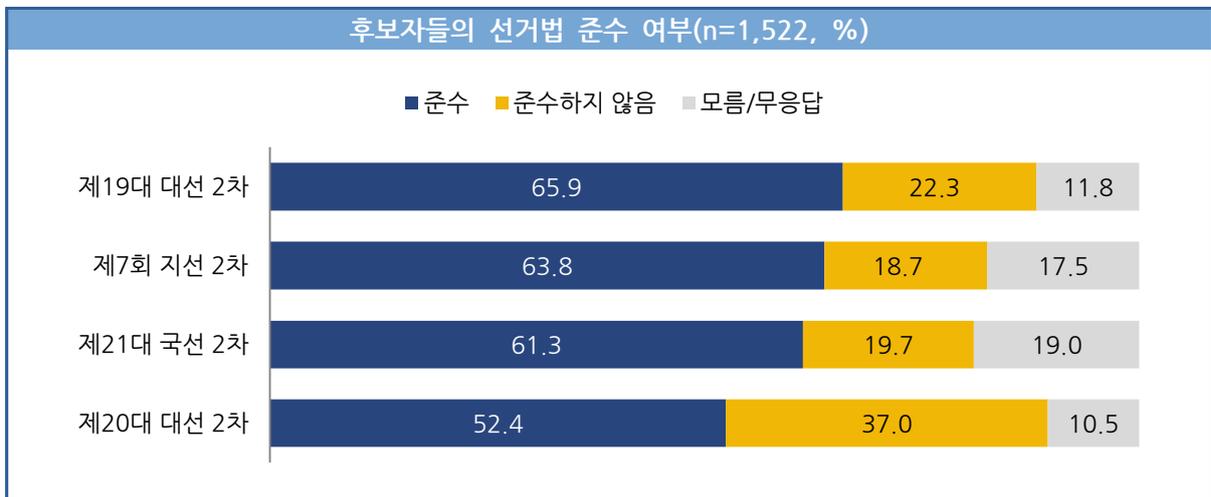




공명성 평가(%)	선거 공명성		공명하지 않은 이유 Top3 (제20대2차기준)		
	공명함	공명하지 못함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때문에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때문에	검찰·경찰의 소극적이고 편파적인 단속·처리 때문에
제18대 대선 2차	56.6	32.8	43.0	21.5	1.6
제19대 대선 2차	59.9	31.1	48.0	28.5	3.6
제7회 지선 2차	61.3	23.7	45.6	24.3	6.1
제21대 국선 2차	55.8	26.8	29.0	31.9	5.9
제20대 대선 1차	39.8	50.5	34.4	30.1	13.3
제20대 대선 2차	37.9	54.5	42.7	29.0	9.2

## 11. 후보자 선거법 준수도 / 선거법 준수도 투표 반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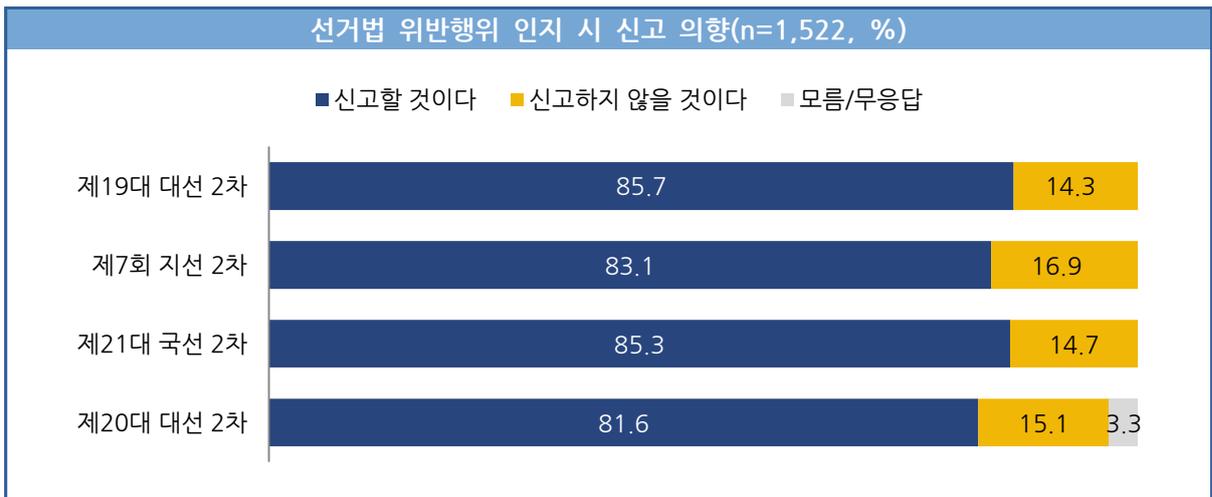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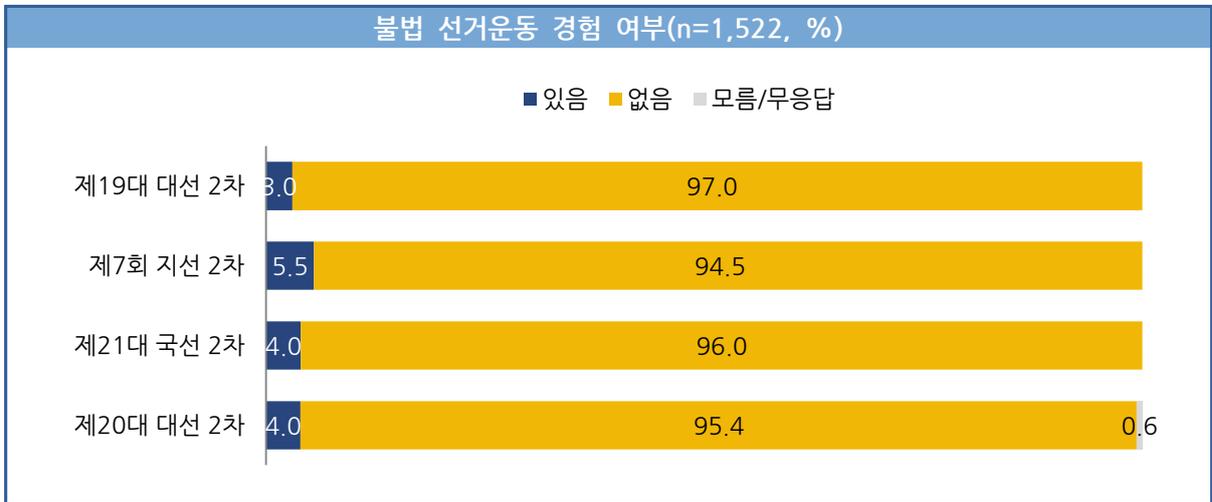
- ▶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유권자는 52.4%
- ▶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74.1%)은 후보자들의 선거법 준수 여부를 투표 후보 결정 시 반영
  - 19대 대선 대비, 후보자 '선거법 준수'에 대한 인식 및 선거법 준수 여부 투표 후보 결정 시 반영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13.5%p, 7.4%p 감소함
  -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여부에 대해 '잘 지키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52.4%(매우 잘 지키고 있다 1.9% + 잘 지키는 편이다 50.6%)로 부정적 평가(37.0%)보다 높았음.
  - 한편,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응답은 74.1%(크게 반영할 것이다 25.4% +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다 48.7%)로 '반영하지 않겠다'(22.2%)는 응답보다 높았음





## 12. 불법 선거운동 경험 여부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의향 / 미신고 이유

- ▶ 불법 선거운동 경험 또는 들어봤다 4.0%
- ▶ 유권자의 80% 이상은 '선거법 위반 행위 인지 시 신고하겠다'고 응답
  - 불법 선거운동(금품·향응 등) 경험 여부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의향은 지난 대선 및 지선, 국선 대비 비슷한 수준
- ▶ 선거법 위반행위 미신고 이유로는 '신고를 하든 안 하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고가 번거롭고 귀찮아서'(24.6%), '신고를 해도 즉각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신고를 하든 안 하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라는 응답은 19대 대선 이후 미신고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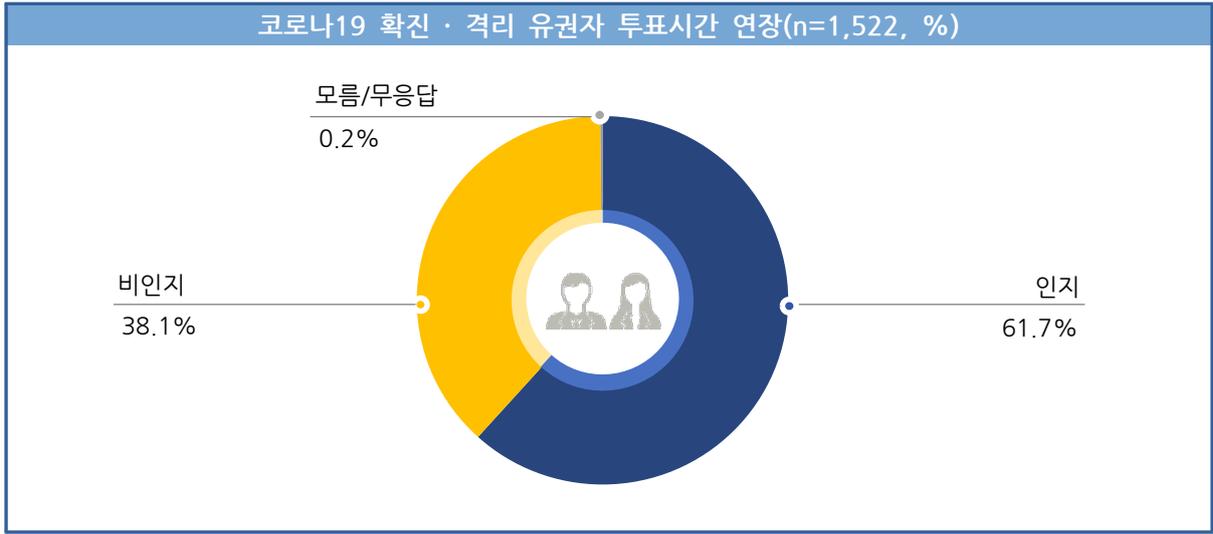


선거법 위반행위 미신고 이유	제19대 대선 2차	제7회 지선 2차	제21대 국선 2차	제20대 대선 2차
	(n=214)	(n=253)	(n=220)	(n=230)
신고를 하든 안하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36.8	31.8	31.8	44.7
신고가 번거롭고 귀찮아서	26.5	27.4	23.1	24.6
신고를 해도 즉각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12.9	13.1	12.7	10.8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되므로	12.1	8.4	6.5	7.4
신원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1	14.3	9.6	6.5
기타	0.4	2.4	10.2	2.5
모름/무응답	5.2	2.6	6.2	3.3



### 13. 선거 관련 제도 인지도

-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의 투표시간 연장(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에 대해 ‘알고 있었다’ 61.7%
- 30대 이하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의 투표시간 연장 인지도 타 세대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18~29세 30.6%, 30대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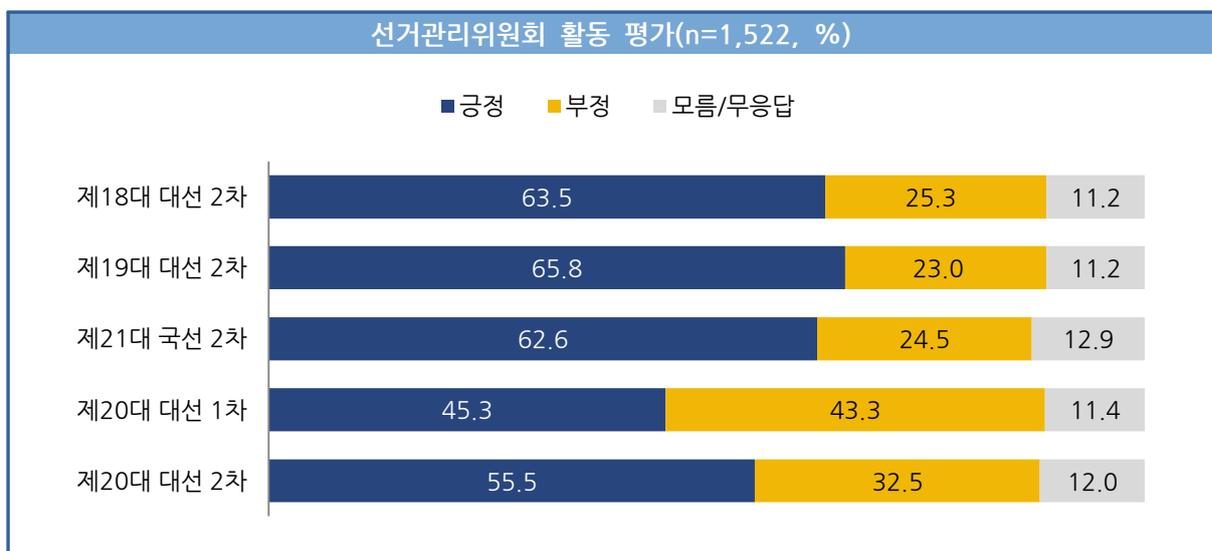


## 14.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및 활동 평가

### ▶ 선관위의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긍정평가 55.5%

- 1차 조사 대비 10.2%p 상승하였으나, 이전 대선 대비 긍정평가 대폭 감소
-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 5.0%, '잘하고 있는 편이다' 50.5% 등 긍정평가가 55.5%로 부정평가(32.5%) 보다 높게 나타남. 선관위에 대한 긍정평가는 이전 대통령 선거 때보다 10.3%p 큰 폭으로 하락함.

- 긍정평가는 70세 이상에서 38.5%로 특히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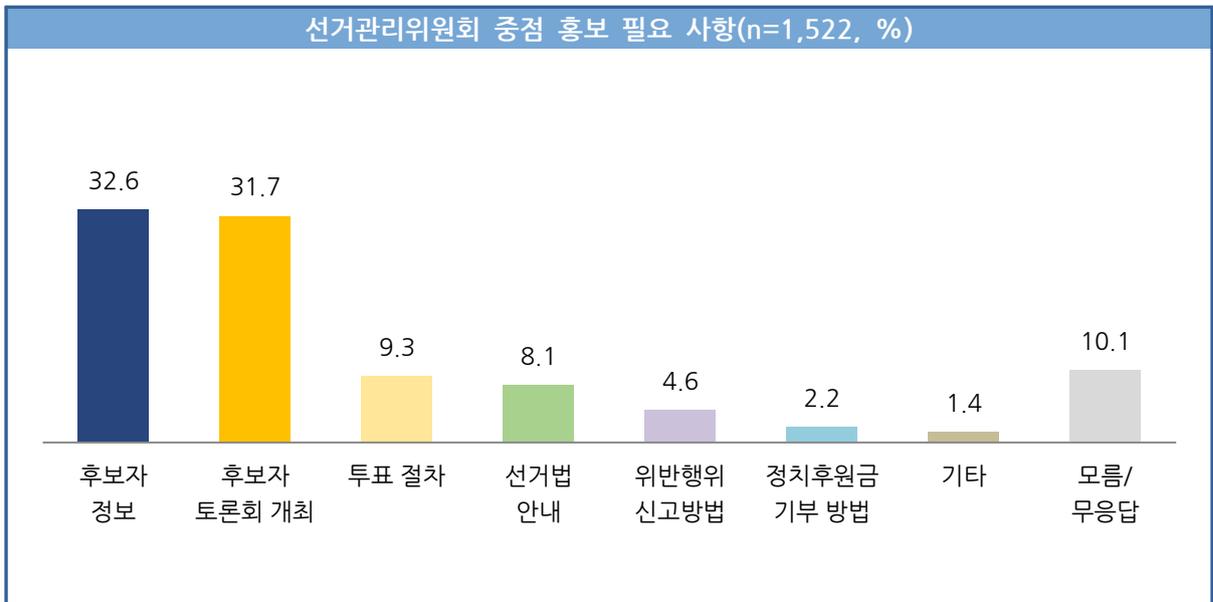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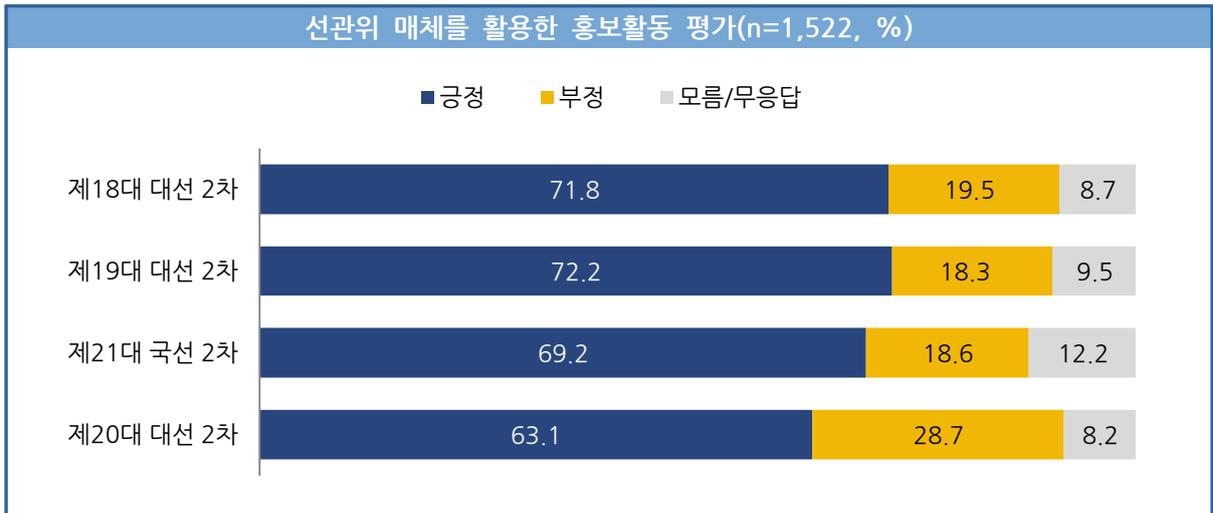


### 15.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 평가 / 중점 홍보 필요사항

▶ 선관위의 매체 활용 홍보활동, '잘하고 있다' 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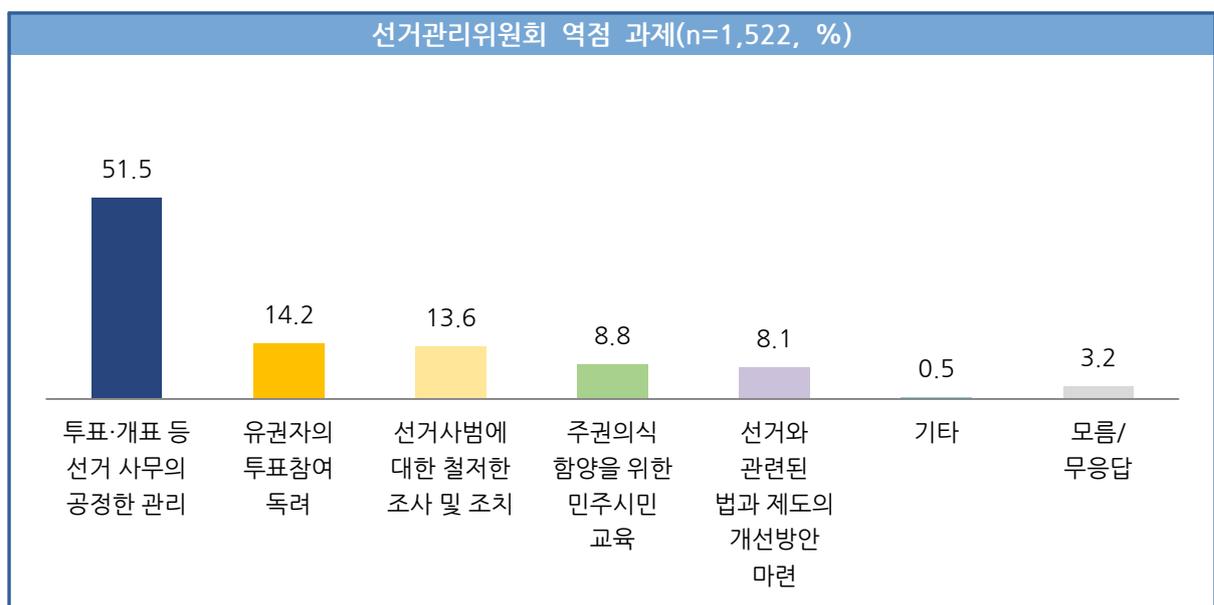
- 선관위가 TV·라디오광고, 현수막, 포스터, 버스광고,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실시하는 공명선거 홍보활동에 대한 긍정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5.7% + 잘 하고 있는 편이다 57.4%)가 부정평가(28.7%)보다 높게 나타남

▶ 선관위의 중점 홍보 필요사항은 '후보자 정보'(32.6%) 및 '후보자 토론회 개최'(31.7%)



## 16.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

- ▶ 선관위 역점 과제로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51.5%)라는 응답 가장 높음
  -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는 19대 대선 시부터 계속하여 1순위로 응답됨. 반면 19대 대선 대비 '선거 사범 조사/조치'와 '선거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은 응답 감소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가 51.5%로 가장 높았으며, '유권자의 투표참여 독려'(14.2%),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13.6%),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8.8%) 순의 응답을 보임
  - 모든 세대/계층에서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1순위로 꼽음



선관위 역점 과제(%)	제18대 대선2차	제19대 대선2차	제7회 지선2차	제21대 국선2차	제20대 대선1차	제20대 대선2차
투·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	13.5	41.3	35.0	38.2	51.7	51.5
유권자의 투표참여 독려 <sup>주1)</sup>	32.6	11.9	18.3	15.7	8.8	14.2
선거 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sup>주2)</sup>	22.4	18.0	20.7	17.5	15.8	13.6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	-	9.8	10.0	6.8	8.8
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13.1	11.2	12.3	12.9	11.6	8.1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12.5	-	-	-	-	-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홍보	-	11.9	-	-	-	-
기타	0.4	0.2	0.4	0.6	0.5	0.5
모름/무응답	5.5	5.3	3.5	5.2	4.9	3.2

주1) 18대 대선 2차의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한 홍보활동'이라고 보기 제시

주2) 18대 대선 2차의 경우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라고 보기 제시